원도심 산지천에 제주 이야기 담은 미술 축제

제주시 아트페스타인제주

제주 정체성 반영한 신작
미술인 114명·시민 400명
산지천갤러리·탐라문화광장
새마을금고도 갤러리 변신

탐라문화광장 산지천에 설치 예정인 배성미의 '들꽃처럼'.

산지천갤러리에 놓일 남천우의 '#좋아요-제주도-삼나무길'.

원도심 산지천 일대에 미술의 향기가 머문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아트페스타인제주 운영위원회(총감독 김해곤, 운영위원장 서인희)가 주관하는 2020아트페스타인제주다.

제주시는 아트페스타인제주를 5회째로 소개했다. 이도1동이 주최하던 '제주국제아트페어&페스티벌'을 전신으로 뒀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주최하면서 장소와 형식, 명칭을 바꾼 미술축제로 미술인은 물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더했다.

제주비엔날레 예산의 10분의 1 정도로 준비되는 미술축제지만 '페스타 제주, 스토리 제주'란 주제를 내걸고 숨어있는 제주 이야기 등 제주 정체성을 반영한 신작들로 채워진다. 참여 미술인은 114명(팀), 일반시민은 초·중·고등학생을 포함 400명에 이른다. 지역 젊은 예술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참여 미술인의 60.5%(69명)는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구성됐다.

아트페스타인제주는 이달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산지천갤러리, 탐라문화광장, 제주도가 매입해 도시재생 공간으로 활용 예정인 하나새마을금고에서 10일 동안 이어진다. 회화, 조각, 판화, 영상미디어, 설치미술, 사진, 공예, 휘호깃발 등 여러 빛깔 작품이 나온다. 시민 참여 작품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 모양이 담긴 화지에 저마다 기억 속 제주를 표현했다.

산지천 동문교~산지교 구간 수상·수변에 설치되는 야외 탐라문화광장 작품을 제외한 모든 전시는 비대면 온라인 관람을 원칙으로 했다. 주최측은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전시 작품, 작가 인터뷰 등을 수시로 안내한다. 다만, 미술인 작품이 전시될 산지천갤러리는 제주도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 관람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728-2718.

진선희기자

조정철 아닌 제주 여인 '홍윤애의 비가'

제주 창작극 '섬에서…'
3년째 공연 새롭게 각색

2018년 초연된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회장 이상용)의 제주 소재 창작극 '섬에서 사랑을 찾다'가 다시 한번 바뀐 얼굴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달 18일 오후 3시 제주아트센터에서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선보이는 '홍윤애의 비가(悲歌)'다.

이번 작품은 한윤섭씨가 쓴 원작을 바탕으로 강은미·정민자씨가 각색했고 정민자씨가 연출을 맡았다. 정민자 연출가는 "제주 소재 작품이라면 섬에서 사랑을 찾은 조정철이 아니라 홍윤애의 이야기여야 할 것 같아 가장 먼저 각색에 나섰다"며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했기에 두 사람의 사랑이 산신과 천신의 아량으로 맺어진다는 원작과 달리 홍윤애를 짝사랑하는 창수 역을 새롭게 넣어 삼각관계 속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강상훈 박은주 오종협 현유상 강성복 양순덕 김이영 이영원 정윤선 문재용 오상준 김선우 조민석 홍준호가 출연한다. 극단 가람, 세이레, 이어도, 정낭, 파노가리, 예술공간 오이, 퍼포먼스단 몸짓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제주도연극협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실시간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755-0904.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그림혼관 <22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ᄋᆞ멩이 ᄀᆞᆯ**멘**. "누님, 떡이영 궤기도 잇수다. 아고게 귤도 셔나신게마씀."
ᄌᆞᆷ**녜** ᄀᆞᆯ**앖저**. "기여게, 하르바지영 ᄀᆞᇀ이 먹게이, 삼춘이 하영 싼 줜게. 우리 우영팟디 신 귤은 아적은 덜 익엇저. 더 익거덜랑 먹게이."
하르바지 ᄀᆞᆯ**멘**. "아으덜아- 집이 오난 코시롱ᄒᆞᆫ 내우살이 낪저."
ᄌᆞᆷ**녜** ᄀᆞᆯ**앖저**. "예, 하르바지. 추석 차례상 음식인디양 예펜삼춘이 이추룩 하영 보내완마씀. 성산앞바당 물웅덩이서 잡은 바릇궤기도 싯곡양 배영 사과영 ᄇᆞ려봅서 귤도 잇수게. 퍼렁ᄒᆞ여도 막 ᄃᆞᆯ코롬ᄒᆞ연 맛좋은게마씀."

*** 제주어 풀이**

*귤도 셔나신게마씀 : 밀감도 있었네요. *하영 싼 줜게 : 많이 싸서 주더라.
*우영팟 : <이름>텃밭. 울타리 안에 잇는 터알. 채소 따위를 갈아먹는 땅.
*아적은 덜 익엇저 : 아직은 덜 익었다.
*코시롱ᄒᆞ다(코송ᄒᆞ다, 코싱ᄒᆞ다, '쿠수룽ᄒᆞ다, 쿠숭ᄒᆞ다, 쿠승ᄒᆞ다, 쿠시룽ᄒᆞ다, 쿠싱ᄒᆞ다'의 작은 말) : <그림>맛이나 냄새가 비위에 맞아 고소하다.
*내우살(내, 내움살, 내움새, 내움이, 냄살, 냄이) : <이름>냄새.
*내우살이 낪저 : 냄새가 나네. *ᄇᆞ려봅서 : 보세요. *잇수게 : 있네요.
*ᄃᆞᆯ코롬ᄒᆞ다(ᄃᆞᆯ콤ᄒᆞ다) : <그림>맛이 알맞게 달다. 감칠 맛이 있게 달다. 달콤하다.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가 쪽지

건반위은파 앙상블음악회

건반위은파(대표 현은숙)의 다섯 번째 앙상블음악회가 이달 17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열린다.

이날 김현정(오르간), 현은숙(피아노), 곽현종(팀파니), 제주브라스퀸텟이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리스트의 '마제파 교향시 6번',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1번', 라벨의 '라 발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연주한다. 공연 실황은 이달 21일 유튜브로 볼 수 있다.

오카리나 감성콘서트

(사)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협회장 송승헌)가 이달 17일 오후 6시 제주시 봉개동 아트인명도암 야외마당에서 '울림 오카리나 감성콘서트'를 연다.

이날 오카리나 독주와 합주, 팬플루트 연주 등으로 귀에 익은 음악을 들려주며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철새는 날아가고', '한사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프린스 오브 제주', '가을 우체국 앞에서', '홀로 아리랑' 등이 준비됐다.

문학 신인상 작품 공모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운진)와 제주작가회의(회장 강덕환)가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신인상 작품을 10월 31일까지 각각 공모하고 있다.

제주문인협회의 제26회 신인문학상 공모 분야는 시와 동시, 시조, 단편소설, 희곡, 문학평론, 동화, 수필이다. 제주문인협회 홈페이지 참고.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신인상은 시, 시조, 단편소설, 동화·소년소설, 문학평론, 희곡·시나리오 6개 부문에 걸쳐 공모를 진행한다.

제주서가협회 서예축전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김광우)는 이달 17~22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2020제주서예문화축전'을 펼친다.

현장 전시는 이 기간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제19회 한라서예전람회 수상작, 초대작가전, 작년 대상 수상자 작품전, 서예작품 영상전, 서예문화체험 코너 등으로 짜여진다. 전시 작품은 170여 점에 이른다. 유튜브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로 접속해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역사 속 역병을 이겨낸 제주인 기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테마전 등 새롭게 구성

다시 문이 열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이 '제주인, 역병을 이겨내다' 등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테마전 '제주인, 역병을 이겨내다'는 제주 감염병과 관련한 역사 기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물을 소개하는 자리다. 의서, 약재, 의료도구 등 10여 점을 선보인다.

'제주의 생활문화: 나무', 돌을 구성하는 광물들을 볼 수 있는 '편광현미경 체험존'도 새로 구성했다. 2020년 상반기 박물관 기증 자료를 소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에는 신칼 등 무구 약 30점을 전시했다.

'박물관 속 갤러리' 다섯 번째 초청전으로는 고윤식 작가의 '유무상생-토끼와 거북이'가 이달 18일까지 이어진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